

# 통일이 되면 남북한 사람들은 과연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정신, 사회적 측면에서의 통합 전망

전우택\*

## I. 서론

21세기 한민족의 최대 과제는 통일이다. 그것은 북한도 원하는 것이고, 남한도 원하는 것이다. 비록 그 통일의 방식, 통일의 과정, 통일의 주체에 대하여는 남북한의 생각이 아직까지 다르다 할지라도, 적어도 통일을 하여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는 양측의 의견이 어느 정도 동일하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과연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잘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것은 통일 그 자체의 성공 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이것은 마치 남녀간의 결혼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들이 어떤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 결혼을 하였든지, 마침내 결혼을 한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은 결혼에 이른 그 과정과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냥 일단 결혼만 하고 나면

\* 연세대학교 정신과학교실.

서로 적당히 적응하면서 잘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우리 사회에서 너무도 높은 이혼율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통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통일만 되면 중간에 좀 문제는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 적응하여 잘살게 될 것이다라는 식의 생각은 너무도 안이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2001년도에 실시된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실태조사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통일 후에 쉽게 서로 이해하며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총 528명의 탈북자가 응답을 하였다. 그 응답 내용을 보면 “매우 그렇다”(15%, 80명), “어느 정도 그렇다”(17%, 88명), “보통이다”(20%, 105명), “별로 안 그렇다”(28%, 147명), “전혀 안 그렇다”(20%, 108명)였다.<sup>1)</sup> 즉 탈북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남북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48%)이 긍정적인 응답(32%)보다 훨씬 더 많았다. 같은 조사에서 통일 후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살 때 생기게 될 어려움으로 예측하는 것을 세 개씩 말해 달라고 하였을 때 총 1361개의 응답이 나왔다. 그 내용을 보면 분류해 보면 “가치관, 사고 방식, 생활 습관 등의 문화의 차이”(28.3%), “경제적 생활 수준의 차이”(25.0%), “상호 이해의 부족, 편견 등으로 인한 화합의 부족”(13.4%), “정치 이념, 사상, 제도의 차이”(10.9%), “언어의 차이”(10.0%), “지역 갈등”(2.1%) 순으로 나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결국 남북한 사람들의 가치관, 사고 방식, 상호 이해의 부족, 상호 편견 등으로 인한 갈등 예상이 총 41.7%로 정치 이념, 사상 등의 차이로 인한 갈등 예상 10.9% 보다 4 배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탈북자들은 통일 이후 남북한 사람들은 정치 사상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보다 정신적, 심리적 차이로 큰 갈등을 가질 것이라 예상한 것이다.

1) 전우택·윤덕용, “2001년도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2001).

그 동안의 통일 논의는 주로 통일 방법과 과정, 통일 비용 등을 주제로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마치 결혼에 있어 연애 결혼을 할 것인지, 중매 결혼을 할 것인지, 사귀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얼마나 양가 부모의 동의를 얻어 낼 것인지, 결혼 비용과 혼수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은 결혼이 성사되는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일단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못된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한 그 순간부터 그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 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서로 변화해 갈 수 있겠는가 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잘 살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우선 그들 각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여야 한다. 둘째, 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잘 살려고 하는 의지와 변화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나 양쪽 모두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령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점차 더 좋은 가정을 만들 수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필자는 그동안 통일의 이런 측면을 “사람의 통일”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여 “땅의 통일” 즉 정치, 군사, 경제적 통일과 대비시켜 왔었다.<sup>2)</sup> 이 글에서는 남북한이 통일이 된 후에 함께 잘 살게 되는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에

2)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한 제언: 남북한 사람들의 이질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신의학적 제언,” 전우택 저,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pp. 313-338.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글은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자들의 통일 관련 연구들을 토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 연구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및 구 공산체제였던 동독, 루마니아, 폴란드, 그리고 현재도 사회주의 국가지만 개혁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의 경험을 직접 듣고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에 관한 내용은 남한에 들어 와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통하여 북한 사람들의 정신, 심리적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sup>3)</sup>

둘째,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 양상은 북한 사람들의 의식적 특징을 보여주는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탈북자들의 자료만을 가지고 전체 북한 주민에 대한 생각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 양상은 통일 후 북한 사람들의 통일 사회 생활에 대한 예측을 어떤 자료보다도 좀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sup>4)</sup>

- 
- 3) 민성길, 『통일과 남북 청소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민성길·전우택·윤덕룡, “북한 청소년의 생활과 발달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8, (1999), pp. 1047-1062; 전우택,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적 갈등에 대한 이해,” 전우택 저,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pp. 287-312; 전우택,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대한 심리적, 정신의학적 이해,” 전우택 저,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pp. 21-69; 전우택·민성길·윤덕룡, “공산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에서의 갈등 및 그 해결 방안: 루마니아 사례를 중심으로(연구중),” (2001b).
- 4) 윤덕룡·강태규, “탈북자들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 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1권 2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pp. 169-220;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권 2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pp. 109-167; 전우택, “사람의 통일을 위한 제안: 남북한 사람들의 이질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신의학적 제안,” 전우택 저, 『사람

세째, 이들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도왔던 보호 경찰관, 공무원들의 실제 경험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2년 정도의 일정한 기간 동안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객관적으로 보아온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sup>5)</sup>

넷째,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도왔던 민간단체들의 책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이 있다. 향후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에 있어 정부보다도 민간 자원의 역할은 매우 클 수밖에 없어, 이들 자원 봉사자들의 경험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이상과 같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통일 후 과연 남북한 사람들은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II. 남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차이들

사실, 남북한 사람들 모두는 같은 한국인들로서의 심리적인 그 밑바탕에 있어 똑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세대가 지나가는 긴

---

의 통일을 위하여》(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c), pp. 313-338; 전우택,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적 갈등에 대한 이해,” 전우택 저,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d), pp. 287-312; 전우택,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대한 심리적, 정신의학적 이해,” 전우택 저,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e), pp. 21-69; 전우택·윤덕룡, “2001년도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2001).

- 5) 전우택·윤덕룡·민성길, “보호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신경정신의학』 40권 2호, (2001a), pp. 203-216.
- 6) 전우택·윤덕룡·강성록·김형중·민성길, “자원봉사자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통일연구』 5권 1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1a), pp. 157-184; 전우택·윤덕룡·강성록·김형중·민성길, “비정부기구(NGO)의 탈북자 지원경험 분석 및 개선 방향,” 『통일연구』 5권 1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1b), pp. 185-210.

세월동안 남북한은 완전히 다른 체제를 이루었고, 그 체제하에서 전혀 다른 목표를 강렬하게 지향하며 살아왔기에, 이제 남북한 사람들은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마치, 같은 남한 사람이고, 비슷한 경제 수준에서 교육받고 살아 온 같은 연령대의 남녀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른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 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때로 부부로서 살기에 정신적으로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동안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 양상을 보면 그 개인적인 편차가 매우 큼을 볼 수 있었다. 즉 매우 빠르게 남한 사회를 이해하고 자신의 개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도 상당수 된다. 반면에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를 힘들어하여 기술을 습득하지도 못하고, 직장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면서 정부나 주변의 지원에만 의존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은 통제가 극도로 심한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들어 올 수 있었을 만큼, 일반 북한 주민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강인하며, 남한 체제에 편입되어 들어가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의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북한에 그대로 남아 있는 보통 북한 사람들과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탈북자들의 특징이 아닌, 북한에 살고 있는 일반 북한 주민들의 특징과 차이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차이

### 1) 수동적이다.

이것은 구 공산 체제하에서 살았던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일반 북한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어떤 일을 해 본 경험은 적고, 주로 위에서 지시되었던 일만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에 철저하

게 익숙해져 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어떤 식으로 일하라는 작업 지시가 있고, 그것을 감독하면서 어떤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바로 다시 지시를 내려 줄 수 있는 감독자 있을 때는 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지시와 감독자가 없으면 매우 힘들어하고 불안해한다. 지시와 감독자가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내린 판단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일을 자신이 생각하여 선택하고, 그 판단에 따라 일을 하고, 그래서 생기는 이익을 자신이 가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남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될 것이다.

2) 긴장과 경쟁이 없고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집단에 대한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자신과 다른 계급, 계층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하지만 알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극도로 위험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국가가 일반적으로 결정해준 직장에 나가서, 비슷한 계급과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적당히 알아서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는 모두가 똑같은 월급과 배급을 받으며 살아 온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그 안에 경쟁에 의한 긴장은 일반적으로 적다. 그러므로 같은 계급 내에서는 일종의 연대 의식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어진 체제 내에서 저항만 하지 않는다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그것은 체제가 요구하는 상호 감시와 맞물려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공평한 분배에 대한 의심이 들 경우 이들은 매우 불안정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남한 사람들의 의식과 차이라 할 수 있다.

- 3) 마음 속 생각과 밖으로 나타내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 탈북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남한에서는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차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입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설사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밖에 내놓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된다. 그러므로 아주 친한 사이에서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일반 사회에서는 늘 “정해져 있는 것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이것은 중앙 노동당의 선전활동에서부터 인민학교 교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에게 있어 진실이 아닌 것처럼, 타인들의 말도 그 말이 그들에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 이것은 사회 전체를 매우 큰 불신의 사회로 만들어 놓았다. 때로 남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조심스러움, 의심하는 태도 등은 이런 그들의 사회적 생활 경험 및 심리와 연관되어 있다.

- 4) 사람의 성공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보다는 다른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그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다. 북한에서의 성공은 첫째로는 철저하게 그 태어난 출신 성분으로 인하여 결정된다. 많은 탈북자들이 그들의 출신 성분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좌절하고 고민한 이야기들을 한다. 둘째로는, 출생 후에 특별한 신분에서 있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맺게 되는 특별한 인연이 성공의 요인이 된다. 셋째,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개인적 능력과 노력이 역할을 한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꾸준히 업적을 쌓아 가는 것”보다는 “특별한 계기로 한 순간에 신분을 바꾸는 것”



에 더욱 집착을 하게 된다. 이것은 탈북자 중 일부의 사람들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이유가 된다. 즉 자신은 목숨을 걸고 남한에 넘어 오으로써 일종의 “신분”을 바꾸었는데, 남한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개인적 능력보다 “특별한 계기”에 좀더 집착하는 그들의 의식을 남한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워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탈북자들은 남한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하여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사회 적응에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sup>7)</sup>

5) 목적 지상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일반 북한 주민들의 의식적 특징이라기 보다는 북한 지도 계급의 의식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간접적으로 북한 일반 주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공산주의라는 사상은 “최종적인 공산혁명 완수”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에 있어 그것은 너무도 숭고하고 강렬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어떤 다른 가치를 두기가 어렵다. 즉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작은 휴머니즘” 같은 것, “작은 인간적 신뢰” 같은 것은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지상주의적 태도가 남한 사람들을 당황시킬 수 있다. 즉 인간의 행동과 결정에는 우선순위를 두기 힘들 정도의 중요한 여러 요소들이 공존하며, 그것들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남한사람들에게 북한사람들의 일방적인 목적 지향적 태도들이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것이다.

## 2.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차이들

우리는 지금까지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 때 문제가 될

---

7) 앞의 글, (2001).

수 있는 북한 사람들의 정신적 특징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실은 남한 사람들 역시 북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데 많은 정신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돈의 소유 정도를 “우월과 열등”의 문제로 바로 연결하는 의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남한 사람들은 그동안 불안정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숨가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돈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따라서 소유한 돈이 적고, 또한 부(富)를 새로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북한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별로 “가치 없는 인간”으로 느끼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북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문제를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문제에 대한 일종의 “옳고 그른 문제”로 보고 있는 것에 비하여, 남한 사람들은 그것을 “우월과 열등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될 것이다.

2) 합리적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 남한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우리 모두가 같은 시공간 속에서 존재하면서 나 외의 다른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돕고 섬기려는 공동체 의식이 날이 갈수록 희박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기주의는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이기주의가 합리성을 가지게 될 때,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삶이 더 안정되고 풍요로워 질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될 때, 그 사회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남한 사람들의 의식에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좀더 낙후하여 있는 북한과의 통일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 사람들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할 수 있다.

### III. 정신적 차이들에 의하여 북한 사람들에게 예상되는 문제점들

이와 같은 남북한 사람들의 정신적 차이는 통일 이후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될까? 특히 북한 사람들에게 예상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심한 불안을 경험할 것이다.

통일된 사회는 북한 사람들에게 많은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평생 을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살아온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부터는 모든 것이 자유고 네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 하는 것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해방과 자유의 선언”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극단적 불안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은 구 동독 등 공산체제 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경험한 것이었다. 특히 직장이 가진 의미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남한에서처럼 경제적 차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일상 생활적 측면에서 훨씬 더 컸던 북한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실업 등이 가지는 심리적 충격은 극심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2. 경쟁에 대한 큰 심리적 부담을 가질 것이다.

이들에 있어 경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새로운 노동 시장에 들어가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보이고 무엇

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여 살아남아야 한다는 식의 분위기에 남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심리적 긴장감을 느낄 것이다.

### 3. 권위와 가치관의 혼란이 있을 것이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가치와 권위의 혼란이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어느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공산체제의 붕괴는 공산체제의 붕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모든 가치관과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붕괴까지를 의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좀더 강력한 독재 경험을 하였던 나라였을수록 더 심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루마니아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사람들은 그런 혼란감을 매우 크게 겪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런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도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 연구에서도 북한에 대한 심리적 소속감이 더 큰 사람들일수록 남한 사회에서 가치관의 혼란이 더 컸으며 적응에도 어려움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 4. 상대적인 경제적 열등감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과의 경제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을 것이다. 구 공산체제 국가의 경우를 보더라도, 구 동독 사람들은 폴란드나 체코 사람들보다도 경제적으로는 더 나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살고 있는 구 서독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였던 까닭에 훨씬 더 큰 상대적 불행감을 겪었다. 이것은 북한에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경제적인 열등감은 북한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열등감은 남한

8) 전우택·윤덕룡, “2001년도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2001).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깊은 연관을 가질 것이다. 2001년도 조사에서도 통일 후 갈등의 원인으로 “경제적인 차이에 따른 열등감”이 두 번째로 큰 이유였다.<sup>9)</sup>

#### 5. 돈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감정으로 고통을 겪을 것이다.

2001년도에 실시된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 조사에서 있었던 이들의 의식 조사에서 탈북자들은 “남한사회에서는 돈이 최고인 것 같다”라는 의견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인다. 그들이 지금 보고 경험하는 남한 사회는 돈이 전부인 것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들이 돈에 대하여 절박한 심정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이들이 이해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오직 돈뿐이라는 매우 극단적이고 왜곡되고 편협된 “그들 식의 자본주의 체제 이해”를 나타내 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들의 이해는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북한에서의 목적 지상주의적 태도의 훈련과 연관되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 IV. 그렇다면 지금 남한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1. 민족적인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높이는 작업을 함께 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남북한 사람들은 함께 잘 살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많은 정신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

---

9) 위의 글, (2001).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남북한이 함께 민족적 차원에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의식은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아질 때 강화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전통, 사상, 풍습 등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작업이 남북한 공동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아직까지는 정치적, 이념적으로 대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선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높이는 공동의 작업만큼은 함께 하여야 민족 공동체 의식이 커져 갈 것이다.

## 2.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정서적 접근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서적인 거리감을 어떻게 해소하는가이다. 실제로 남한 내 탈북자들을 지원한 경험을 가진 민간단체 자원봉사자들은 탈북자들에게 인간적 호감을 느낀 이유를 자유롭게 두 가지씩 적어보라고 하였을 때, “인간적인 정이 있다”(36.1%), “예의바르다”(36.1%), “성격이 적극적이다”(28.9%), “의지력이 강하다”(20.5%) “소박하고 검소하다”(16.9%), “침착하다”(4.8%) 등을 들었다.<sup>10)</sup> 함께 살아가면서 남한의 자원봉사자들은 북한 출신 사람들에게 많은 장점을 경험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남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정서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 교육, 사회 교육, 일반 대중 매체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그동안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는 통일

10) 전우택·윤덕룡·강성록·김형중·민성길, “자원봉사자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통일연구』 5권 1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1a), pp. 157-184.

관련 영화인 ‘쉬리’, ‘공동경비구역(JSA)’ 등은 이러한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보면서 서로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소설, 영화 등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 3. 남한의 자본주의가 더 합리적인 체제가 되어야 하며 남한 사람들이 더 검소한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결국 체제의 우수성이 북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비합리적인 시스템을 남한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남북한 사람들의 정신적 차이는 더 많은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 남한 사람들이 낭비하는 생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북한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공평한 분배에 의한 연대 의식”을 크게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 사람들의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사는 모습”은 통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일임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 4. 통일에 있어 세대간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여야 한다.

탈북자들은 10대에서 30대까지의 남한 사람들보다는 40대 이상의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사고 및 행동 방식을 이해하기가 더 쉽다는 뚜렷한 의견을 내고 있다.<sup>11)</sup> 이것은 최근 들어 남한의 젊은 세대들은 더 급격한 의식의 변화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 사람들과의 정신적인 차이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서로 보인다. 즉 북한 사람들의 의식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남한은 과거보다도 더 급격한 의식의 변화를 겪고 있는 문제점이 통일에 있는

11) 전우택·윤덕룡, “2001년도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2001).

것이다. 이것은 통일 과정이 너무 빨라서도 안되지만, 너무 늦어져서도 안되는 이유를 나타내 보이기도 한다. 동시에 통일 과정에 있어 남한의 각 세대들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인다.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도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있어서도 좀 더 연령이 높은 자원봉사자들이 탈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좀더 안정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좀더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연관되지만, 탈북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의식상의 특징이 더 많은 공감대를 가지게 한 것과는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즉 연령이 높을수록 반공 사상은 더 강하나 동시에 북한 사람들과 정신적인 이해는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성세대와 그 반대적 특성을 가진 젊은 세대 모두가 통일 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통일 준비에 있어 중요하다는 것이다.

##### 5.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을 하여야 한다.

2001년도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 실태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 중 하나는 탈북자들이 일반적으로 종교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산체제 하에서 종교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에서 종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것은 탈북자들만의 특수한 현상이며 실제로 일반 북한 주민들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을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적어도 탈북자들이 종교에 대하여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남북한 사회가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같은 시·공간 안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좀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가치관의 형성이 특히 남

12) 전우택·윤덕룡·강성록·김형중·민성길, 앞의 글, pp. 157-184.



한 내에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통일은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만들어 낼 것이고, 그것은 미성숙한 자본주의적 경쟁 심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 V. 결 론

두 세대에 걸친 분단의 기간을 통하여 남북한 사람들은 서로 많이 달라졌다. 이것은 이제 부정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이 반드시 합쳐질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이가 우리 민족에게 반드시 파괴적인 것만도 아니다. 오히려 이런 차이를 통하여 남북한은 더 성숙한 통일 사회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서로 많은 점에서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여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나 비슷하다. 반드시 두 사람이 똑 같아야만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다르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관용의 정신이다. 남북한은 이제 서로 다르다는 것에 당황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차이에 의한 갈등을 파괴적 갈등이 아니라 창조적 갈등으로 승화시키려 시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 민족은 20세기 전체 인류가 치루었던 이데올로기의 홍역을 어느 민족보다도 심하게 치룬 민족이다. 이런 경험은 우리 민족을 더 강인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놓은 측면이 크다. 아직 이 갈등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것을 얼마나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은 통일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은 과연 함께 잘 살수 있을까?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노력만 한다면.

### 참고문헌

- 민성길·전우택. “사람의 통일.” 송자·이영선 편. 『통일 사회로 가는 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6.
- 민성길. “통일 이후 예상되는 북한 주민의 문화 충격 및 적응 문제.” 『통일이후』 1. 1998.
- 민성길·전우택·윤덕룡. “북한 청소년의 생활과 발달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8. 1999.
- 민성길. 『통일과 남북 청소년』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 \_\_\_\_\_. “북한 사람들의 삶의 질.” 『통일연구』 4권 1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0.
- 윤덕룡·강태규. “탈북자들의 실업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 및 대책: 탈북자들의 경제문제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1권 2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 전우택·민성길·이만홍·이은설. “북한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36권 1호. 1997
- 전우택.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 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권 2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 \_\_\_\_\_. “독일 통일 이후 심리적 갈등과 극복 방안: 구 동독인들과의 면담 기록을 중심으로.” 전우택 저.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a.
- \_\_\_\_\_. “민족 통합의 길을 찾아서: 베트남에 있어 귀환자 처리 및

남북 갈등의 해결 보색.” 전우택 저.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b.

\_\_\_\_\_. “사람의 통일을 위한 제언: 남북한 사람들의 이질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신의학적 제언.” 전우택 저. 『사람의 통일을 위하  
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c.

\_\_\_\_\_.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적 갈등에 대한 이해.” 전  
우택 저.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d.

\_\_\_\_\_.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대한 심리적, 정신의학적 이  
해.” 전우택 저.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e.

전우택·윤덕룡·민성길. “보호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신경정신의학』 40권 2호. 2001a.

\_\_\_\_\_. “공산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에서의 갈등 및 그  
해결 방안: 루마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중). 2001b.

전우택·윤덕룡·강성록·김형중·민성길. “자원봉사자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통일연구』 5권 1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  
연구원, 2001a.

\_\_\_\_\_. “비정부기구 (NGO)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및 개선 방  
향.” 『통일연구』 5권 1호. 서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1b.

전우택·윤덕룡. “2001년도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  
2001.

Abstract

---

## Can two peoples get along?

: the prospects of unification of the psychology  
of South and North Koreans

Woo Taek Jeon\*

Despite possessing a common history, language, culture and set of customs, the prolonged separation and ideological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gradually produced two distinctly different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s with different ways of thinking and discrete behavior patterns. Therefore, elucidating the differences and the ways to overcome those differences is main prerequisite for Korean unification. In comparison with South Koreans, North Koreans are characterized as follows; 1) they are passive in their behavior. 2) they have a stronger feeling of solidarity with others who share resources evenly in their society, which causes no tension or competition; 3) They accept it as ordinary that one can speak out differently from their genuine mind due to political reasons; 4) they usually think that the major reason for success is not their own ability, but rather other factors such as their family origin; and 5) their leadership class, in particular, have highly goal-oriented minds.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ns are characterized

---

\*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as follows; 1) they have a strong tendency to evaluate people's value and ability simply based upon their material worth; and 2) they lack reasonable sense of community. Therefore, when unification comes about, North Koreans are expected to have a number of difficulties; 1) severe anxiety, as freedom is not seen as a liberty, but a set of anxiety; 2) a great psychological burden, the level and intensity of which South Koreans cannot easily understand. 3) confusion of sense of value and authority. 4) a feeling of inferiority due to their relative poverty; and 5) confusion stemming from their mis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money. In order to overcome these differences and difficulties, several approaches are suggested in preparation for a successful reunification; 1) South and North Koreans need to redouble efforts to raise their common Korean national pride in spite of their ideological differences, as this common national pride will be main power to help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unification; 2) South and North Koreans need to create opportunities to meet together and share their emotional solidarity in as many as possible. 3) South Korea, in particular, needs to develop a more sound and reasonable capitalist system and the South Korean people need to lead a plain life which decreases the painful feeling of economic inferiority of the North Koreans after unification; 4) generation of South Koreans must be encouraged to carry out their unique role in the unification movement; and 5) unification requires the Korean people adopt a new a new value system of sharing and mutual respect.